

# 기독교 평등사상에 근거한 장애아통합교육<sup>1)</sup>

## I. 서론

## II. 장애아통합교육의 개념

1. 통합교육의 역사
2. 통합교육의 정의

## III. 장애아통합교육의 일반적 근거

## IV. 장애아통합교육의 기독교적 근거

1. 구약성경에 나타난 평등사상
2.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나타난 평등사상
3. 대위임 명령에 나타난 평등사상

## V. 결론

## 참고문헌

---

1) 이 논문의 2장과 3장은 본인이 연구한 2004년 배화여자대학교 특성화프로그램인 '장애유아 이해를 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 개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의 일부임을 밝힘.

## I. 서론

장애아를 위한 통합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세계의 선진국가들은 장애아가 지니고 있는 개인차를 다양성으로 받아들여 통합교육의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반 교육환경에 최대한 접근시키려는 방법적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질적인 통합교육의 실시를 위해 통합교육교사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장애아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 관련자들이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1996년 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일반 초, 중등교육법에서의 통합교육의 명시를 불러왔고 이것은 일반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는 단계로의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제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모든 유아교육기관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유아교육현장에서의 통합교육을 위한 양적 팽창이 예상되고 있다(김미경, 정희영, 정갑순, 김동춘, 2004, 3).

또한 장애아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그 중요성이나 법적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장애아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비장애아의 장애아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연구(김수연, 1995; 노은미, 1996; 노승현, 1999; 권오기, 이선복, 2000; 2001; 오미경, 2001; 송유현, 2001; 오은혜, 2002; 민경환, 2002; 김남희, 2002; 김효선, 2003; 손복순, 2003; 우해숙, 2003)와 장애아에 대한 비장애아의 수용태도의 변화를 위한 여러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연구(이숙향, 1998; 이장순, 1992; 정선화, 1993; 채미경, 2001), 그리고 장애아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련된 연구(이영애, 2003; 허효남, 2006; 문만석, 2006; 김정숙, 2006; 신철순, 2005; 김종렬, 2005; 배윤아, 2004) 등이 있다.

이상에서 장애아통합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교육계에서는 장애아에 대한 통합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장애아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장애인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복음화의 대상으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기독교인의 인식은 그렇지 않음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복음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밀알 2025(2003)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1,449,496 명(통계청, 2002) 가운데 복음화의 비율이 최대 5%가 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구가 18.3%(통계청, 2005)

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기독교회의 장애인을 향한 복음화 노력이나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으며 소극적이라는 것은 장애인교회의 존재에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서울지역에 20여개의 농아학교가 있으며 청각장애인 교회가 전국적으로 132개(국민일보, 2004, 5, 27)가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장애인들을 불편해 하며 장애인과 장애아동들을 교회와 주일학교 교육제도에서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0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200개 장애인 복지시설 중 천주교는 30개소(15%)에 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천주교단법인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개신교는 통합측과 성공회가 교단법인에 의해(개교회 법인체에 의한 운영제외) 각각 1개소만 위탁운영하고 있다(손병덕, 2004).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기독교회가 얼마나 소홀한가를 시사하며 이는 기독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인이 장애인을 이해, 수용하고 더불어 살아야 하며 그 근거는 성경의 평등사상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왜 기독교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교육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아통합교육의 일반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서 성경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장애아통합교육의 개념

통합교육의 개념은 통합교육의 역사와 통합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를 살펴보고 종합함으로써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통합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통합교육의 역사

통합교육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분리 위주의 특수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이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유아를 일반 유아들과 분리하여 생각하였으며, 이들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을 위해 분리 교육기관인 특수학교를 증설하여 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 특수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분리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분리만이 최선이 아니라 장애유아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교육환경이 필요하며 이 때 적절한 교육환경이란 분리된 특수교육기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며, 일부 혹은 대부분의 장애유아를 일반 학교에 수용하여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Reynold, 1982). 또한

John(1981)은 특수학급의 많은 아동들은 실제로 정신지체라기보다는 교육경험의 박탈과 문화실조로 인한 것이므로 장애아를 분리시켜 교육하는 것은 민주주의 철학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1972년에 제정된 경제 기회 균등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서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장애아를 전체 아동의 10%이상 입학시켜야 하며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장애 아동의 취학권 보장과 장애아동의 적법절차 권리를 보장하였다(이미란, 1990). 1975년에 특수교육법(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Act: EHA)인 Public Law 94-142 에서는 특수교육이란 정규학급에서 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장애아동들이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Morsink, 1984, 15). 또한 이때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Least Restrict Environment)이 최초로 제안되었다(Vaughn, Bos, Schumm, 2000, 6).

아세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는 아, 태 장애인 10년(1993-2002)을 선포하고 아, 태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나라에 알맞게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1994년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에서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 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이처럼 통합교육의 역사적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통합교육은 민주주의의 이념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 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지 간에 교육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미국의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잘 나타나 있다. IDEA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그들이 어떠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든지 간에 장애가 없는 일반아동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교육환경과 분리된 특수교육은 아동의 장애의 심각성으로 인해 정규학급에서의 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을 때만 일어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Coutinho, Repp, 1999, 10-11). 또한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통합교육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평등성과 교육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 2. 통합교육의 정의

통합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용어는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LRE(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Mainstreaming, 그리고 Inclusion 등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장애아동의 일반학급에의 통합교육의 근거는 LRE 였다. LRE는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으로 비장애아동이 교육받는 환경과 거의 같은 환경에서 장애아동이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말하며 이때 적절한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 많은 장애아동들이 일반학급에 완전히 통합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왔다. 예를 들면, Tonya는 일반적으로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특별한 장비를 갖춘 곳으로 간다. Tonya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LRE)은 비장애아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일반학급,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된 적절한 도움을 말한다(Friend, Bursuck, 2002, 2).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LRE)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특수교육법의 일부가 되고 이로 인해 장애아동이 일반학급의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것을 통합교육(Mainstreaming)이라고 부르게 되었다(Ibid., 3). 통합교육은 최소한의 도움을 통해 전통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학문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또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학문적 과업의 수행과 관계가 없을 때에도 장애아동을 일반학급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교육은 주로 학습장애를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장애아동의 일반학급에서의 의미있는 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는 단순히 장애아동이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참여하는 것만을 통합교육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특수교육을 받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Inclusion은 장애아가 완전히 일반학급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가르침은 그들의 장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들의 능력에 근거한 교육을 말한다. 여기서 통합이라는 의미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한 교실에서 활동하는 물리적 통합은 물론이고 또래와 성인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통합, 그리고 교육과정의 표준에 의해서 예상되어지는 것이 아닌 장애아의 욕구에 근거하여 가르쳐지는 교수의 통합을 말한다(Friend, Bursuck, 2002, 4). Mainstreaming이 주로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아들을 위한 통합이었다면 Inclusion은 신체적 혹은 인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아를 위한 통합을 의미하기도 한다(Friend & Bursuck, 2002, 5).

이상에서 언급되어진 여러 용어를 살펴봄으로써 통합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통합교육이란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인간이란 누구나가 평등하다고 하는 철학에 근거를 두어 비록 장애를 지닌 아동일지라도 비장애아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만 하며, 통합교육의 범위는 단순한 물리적 차원에서만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혹은 비 장애의 또래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

적 통합, 개인의 능력에 근거해서 가르쳐지는 교수의 통합 등을 포함하는 교육을 말한다.

### III. 통합교육의 일반적 근거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그 당위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당위성은 통합교육의 법적, 사회, 윤리적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통합교육의 효과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1973년의 Public Law 93-112, Section 504 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지원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아 차별금지법, 1975년의 Public Law 94-142, Part B 와 1990년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Public Law 101-476 의 최소 제한 환경의 개념, 1997년 Public Law 105-17 에서의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의 강조와 교사들의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회원으로의 가입요망(Vaughn, Bos, Schumm, 2000, 6), 그리고 장애아의 일반학교 통합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과 시행을 감행한 한국의 특수교육진흥법 등은 통합교육의 법적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이소현, 1997; 특수교육진흥법, 1994).

통합교육의 사회-윤리적 당위성은 Wolfensberger(1983)의 주장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비장애인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서비스, 편의시설, 생활양식들이 장애인들에게도 유용하며 가치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애 때문에 공교육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없다는 zero-reject의 개념(Friend, Bursuck, 2002, 10)과 부분참여의 원칙, 통합교육이 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분리교육이 장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주장(Bricker, 1995)들은 통합교육의 사회-윤리적 당위성을 제공해 준다.

통합교육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당위성은 통합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 의해 주장되어질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장애아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아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들이 사회, 언어 인지적 측면에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고 하는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통합교육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이소현, 박은혜, 2001). 통합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장애아에게 주는 이점, 비장애아에게 주는 이점, 그리고 부모와 교사들에게 주는 이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통합교육을 통해 가장 많은 유익을 얻는 대상은 장애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들은 비장애아들과의 통합을 통해 규칙에 대한 인식 및 규칙지키기, 차례 기다리기, 바르게 앉아 간식먹기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다. 둘째, 비장애아와의 여러 영역의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함으로써 장애아의 사회성발달을

피할 뿐 아니라 놀이기술 및 행동, 교육적 측면에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김남희, 2002; Coutinho & Repp, 1999). 셋째, 장애아에게 비장애아의 세련된 사회적 기술과 놀이, 의사소통능력 등을 관찰하며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의 여러 방면에서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Bricker, 1978; Gualnick, 1990; Peterson, 1987에서 재인용; Morsink, 1984, 36; 김광웅, 1990). 넷째, 비장애아와의 통합을 통해 현장견학, 예절학교방문, 교육과정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등을 방문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된다. 다섯째, 비장애아와의 의미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비장애아로부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숙향, 1998, 9).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아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아들도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첫째, 통합교육을 통해 인간의 차이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장애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이것은 비장애아로 하여금 사회적, 정서적인 성숙을 꾀하게 한다(Cooke, Apolloni & Cooke, 1977; Coutinho & Repp, 1999; 박승희, 1994). 둘째, 비장애아는 장애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판단이 정립되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개인적인 판단의 원칙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박승희, 1994). 셋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타인에 대한 수용능력이 증가하고 장애아를 지원하는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넷째, 통합교육의 구조화된 교육환경과 교수과정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다(Bailey & Woley, 1992).

통합교육은 부모와 교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애아의 부모는 정상적인 교육적 환경에 접하고 비장애아의 발달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비장애아의 부모는 장애아에 대한 편견과 거부반응을 없애고 이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배우게 되며(Lamorey & Bricker, 1993), 비장애아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이점을 갖게 된다(김미정, 1995). 또한 교사들은 장애아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게 되며 장애아에 대한 보다 높은 교육적 기대를 형성하게 되는 이점을 갖게 된다(Alper & Ryndak, 1992).

이상에서 언급되어진 통합교육의 법적, 사회-윤리적, 그리고 교육적 효과들은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IV. 장애아통합교육의 기독교적 근거

장애아통합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근거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평등사상과 신약성

경에 나타난 평등사상으로부터 유출될 수 있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평등사상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사역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대위임 명령에 나타나 있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구약성경에 나타난 평등사상

구약성경에 나타난 평등사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으로부터 유출될 수 있다. 창 1장 26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때 장애를 지녔건 아니면 정상적이건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는지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다(김기원, 1998).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빈부와 귀천, 남녀노소, 그리고 장애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출 23장 10-11, 22장 25-27, 레 19장 9-10, 25장 35-37, 잠 14절 31, 19장 17절 등에 나타나 있으며, 고아와 과부를 위한 배려가 출 22장 22-24, 렘 49장 11절 등에 나타나 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의 노예제도가 성행하던 때에 그들에 대한 배려를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다. 출 21장 2-4, 출 21장 20, 신 15장 12-15절 등에서 노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는 인간의 신분이나 능력,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임을 시사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함을 나타내고 있다.

레21장 16-21절에 보면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와 화제를 드리지 못할찌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장애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며 특별히 제사장은 신체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장애인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다(손병덕, 2004).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의 사상이 마치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레 21장 16-2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성소의 거룩함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한 것이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존 하틀리(John Hartley)는 제사장의 신체의 완전성은 거룩의 관념의 외형적 표현으로서 성소의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Hartley, 1992, 692). 이러한 해석이 맞는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장애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레 19: 14)고 말씀하시며,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신 27: 18)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사 35: 5)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지 않는 구성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로서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차별이 없음을 시사한다.

## 2.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나타난 평등사상

기독교의 평등사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차별없는 사역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마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앓은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 8장 1-4절, 9장 1-7절, 18절, 막 1장 29-34절, 막 1장 40- 45, 눅 4장 38-41절, 눅 5장 12-16절, 눅 5장 17-26절, 눅 17장 11-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혈루증, 그리고 나병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마 8장 14절과 28절, 막 1장 21-28절, 막 9장 14-29절, 막 17장 14-20절, 눅 4장 31-37절, 눅 5장 12-16절, 눅 8장 26-39절, 눅 9장 37-43상에는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마 9장 27-31절, 32-32절, 마 11장 5절, 마 15장 30-31, 막 7장 31-37절, 막 8장 22-26절, 막 10장 46절, 눅 4장 18-19절, 요9장 1-12절에는 맹인과 병어리, 절뚝발이와 불구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똑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으로 다가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행 3장 1-8절, 행 9장 32-35절, 행 9장 36-42절에는 베드로가 앓은뱅이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의 복음사역은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장애인들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복음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며(마 4: 24) 오히려 그들의 회복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며(눅 8: 38)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사 35: 5).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등 어떠한 상황과 위치에 있는 자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증거(눅 4: 16-19)하였다. 이처럼 복음은 특정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님을 나타냄으로써 모든 사람이(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말해 주고 있다.

### 3. 대위임 명령(The great commission)에 나타난 평등사상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 19-20)

마태복음 28장 20은 흔히 대위임 명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대 위임 명령에서 마태는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족속을 커다랄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족속이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믿지 않는 민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닌 세계의 다른 다양한 이민족들을 의미한다. 둘째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민족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세계의 다양한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의 남녀노소, 건강하거나 병든 자,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주의 제자가 되는데 제외되는 대상은 없다. 누구나가 주의 제자가 되는데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 건강한 자나 병든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나 정상적인 자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마 2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누구나가 복음의 대상이 됨을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시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개념 하에서 장애자들도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주가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자들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하며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장애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존 본(John Vaughn, 1993, 15-16)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모든 족속이란 “모든 피조물(every creature)”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이 여기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장애자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존 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의 대위임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뿐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 삼듯이, 장애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들을 제자삼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서 특별한 교육이란 통합교육을 의미한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장애자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장애자와 비장애자가 함께 어울려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이 주의 제자 삼는데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V. 결론

일반적 의미에서의 장애아통합교육은 민주주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가 평등하며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개념 하에서, 그리고 법적, 사회-윤리적, 교육적 효과 면에서 장애를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장애아통합교육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측면, 다시 말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장애를 가진 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사회-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정을 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에 대한 이해보다 그 이해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기독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낮다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독교에 나타난 평등사상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복음사역 과 대위임 명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장애아통합교육의 일반적 근거와 기독교에 나타난 평등사상을 근거로 살펴본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일반적 측면이나 기독교적 측면 모두 인간은 그들이 장애를 지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모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평등이라는 의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평등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누구나가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은 공동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누구나가 평등하다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장애를 지닌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장애를 지니지 않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통합교육은 기독교의 평등사상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구약과 신약에 잘 언급되어 있다.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여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지닌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 또한 대위임 명령에서는 모든 민족, 족속 가운데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장애를 지녔든지, 그렇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그들도 예수의 제자 삼아야 하며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반 장애아통합교육이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기독교적으로 법적인 제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평등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맥락에서도 장애아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매우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장애아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일반 장애아통합교육 분야에서는 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기독교 교육적 측면에서의 이와 같은 노력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마 28장 20절의 대위임 명령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먼저 믿는 기독교인 교육자들이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결과를 유출하기 위해 장애아통합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연구, 그리고 실천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국민일보(2004. 5.27). 청각장애인 노리는 이단퇴치 앞장.
- 권오기(2001). 통합교육 영상자료 활용이 일반아동의 장애아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웅(1990). 정신지체 유아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특수 교육연구소.
- 김기원(1998).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 김남희(2002). 비 장애유아와의 미술활동이 장애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정(1995). 장애유아의 일반유치원 통합에 대한 장애유아 어머니와 비장애유아 어머니의 태도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정희영, 정갑순, 김동춘(2004). 장애유아 이해 증진을 위한 통합교육활동의 실제. 배화여자대학교 장애유아통합교육지원센터.
- 김수연(1995). 통합된 놀이프로그램이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효선(2003). 통합적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승현(1999). 비 장애아동 태도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N교회 장애아동부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은미(1996). 장애 유아에 대한 비 장애유아의 긍정적 태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경환(2002). 장애유아의 교류교육이 일반유아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밀알 2025(2003). 밀알의 꿈 2025운동.
- 박승희(1994). 일반학급의 비장애학생과 특수학급의 장애학생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일 분석: 통합교육을 통한 비장애학생의 긍정적 경험. 특수교육논총, 11, 1-32.
- 손복순(2003). 장애 이해 프로그램 적용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병덕(2004). 장애아통합교육의 기독교적 조명. 제 9회 총신 유아교육학술대회.
- 송유현(2001). 장애유아와의 통합교육을 통한 일반유아의 수용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미경(2001). 비장애아동의 장애수용 태도변화를 위한 통합적 개선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은혜(2002). 통합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주는 효과.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해숙(2003). 장애 이해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란(1990). 장애아에 대한 일반유치원아동과 통합유치원 아동의 태도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복(2000). 통합된 장애아동에 대한 비 장애 아동의 태도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현(1997).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의 동향 및 과제. 인간발달연구. 25. 71-91.
- 이소현, 박은혜(2001). 장애유아 통합 유치원 교육과정: 사회적 통합교육 촉진을 위한 활동중심의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이숙향(1998). 학급내 가치있는 역할부여가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장순(1992). 장애인의 수기가 특수학급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변화에 미친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화(1993). 정인지체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개선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미경(2001). 통합교육이 비 장애유아의 장애유아에 대한 인식과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02).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및 장애인 출현율. 10-31.
- 통계청(2005).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
- Alper, S., & Ryndak, D. L.(1992). Educating students with severe handicaps in regular Classe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2(3), 373-386.
- Bailey, D. B. & Wolery, M.(1992). *Teaching infants and preschooler with disabilities*(2nd ed), New York: Merrill.
- Bricker, D(1995). The Challenge of inclus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9(3), 179-194.
- Continho, M. & Alan C. Repp(1999). *Inclusion-the integr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dsworth Publishing Co.
- Cooke, T. P., Aplloni, T., & Cooke, S. A.(1977). Normal preschool children as behavioral models for retarded peer. *Exceptional Children*, 43, 531-532.
- Friend, M. Bursuck, W.(2002). *Includ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 practical guide for classroom teachers*, A Pearson Education Company.
- Guralnick, M. J.(1990). Social competence and early interven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4, 3-14.
- Hartley, John(1992), *Word Biblical commentary: Leviticus*, 김경열 역, 솔로몬출판사
- Lamorey, S. & Bricker, D. D.(1993). Integrated programs: Effects on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E. A. Reek, S. L. Odom & D. D. Bricker(Eds.). *Integrating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to community programs: Ecological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implementation*. Baltimore: Brooks.
- Sutton, Joe(1993). *Special education: A Biblical approach*, South Carolina: Hidden Treasure Ministries.
- Vaughn, S. Bos & Shumm, J.(2000). *Teaching exceptional, diverse and at-risk students in the general education classroom*. Ally and Bacon.
- Wolfensberger, W. (1983). Social role valorization : A proposed new term for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Mental Retardation*, 21(6), 234-239.